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패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준승치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봉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C2 EDUCATION 수시등록 가능 대상 : K-12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573-6706
COMMUNITY PAIN MEDICINE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140-21 32 Ave Flushing NY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임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 하 탄 (212) 947-8382(B) 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스테판노)치과 콜롬비아 치과대학교 졸업 엘름어스트(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주완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계,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배,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치 과 60세 이상 초진 무료 7 Sylvan Ave. Englewood Cliffs 201-302-0700 손영준 아브라함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l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토 3:00 PM-8:0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파(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중업원상해 (718)961-4024(2)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제1696호

2012, 1, 8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마태오 2, 1 - 12)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434-7084 F a x : (718) 405-0053



주님 공현 대축일

ㄹ 입당송

(말라 3,1; 1역대 29,12)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 손에 나라와 힘과 권능이 있네.
<대영광송>

ㄹ 제1독서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0,1-6)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2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3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4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 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5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6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11))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1.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2.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3.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4.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ㄹ 제2독서

(지금은 다른 민족들도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3,2.3-5-6)

형제 여러분, 2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3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4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5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 (마태 2,2)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ㄹ 복 음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2)

1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제송 (마태 2,2)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 8 8시	이 윤형	김 부균	방 경숙	김 미수
11시	이 상식	김 문배	김 옥선	손 대심
1/15 8시	김 철	함 봉국	함 경옥	정 태영
11시	이 회양	성 기용	채 영진	윤 정숙

복 사 : 이 종제&정 무원 열 수연&김 크리스티나
봉헌자 : 주봉길&유휴현 가족 다음주 : 로철진&유근천 가족
헌금봉사 : 찬송하울 어머니 Pr 다음주 : 셋 별 Pr
운전봉사 : 김 영태 다음주 : 윤 광석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주님께(감사미사) : 정미카엘[진웅] 가족봉헌
김희연(가정미사) : 신예레미아[홍원] 봉헌
양다니엘 생일(생미사) : 양발바라 봉헌
김카타리나[신자](생미사) : 이안젤라[효순] 봉헌
최동식(연미사) : 정미카엘[진웅] 가족봉헌

성가

입 당 : 클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성가 101)

봉 헌 : 정성어린 우리재물 (성가 217)

성 체 : 한 말씀만 하소서 (성가 156)

그리스도의 영혼 (성가 172)

파 건 : 동방의 세 박사 (성가 487)



교회 소식

(1) 주의 공헌축일

동방의 세 박사가 별빛을 따라 아기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 약을 선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빛(그리스도)을
따라 살도록 합시다.

(2) 예비자 교리반 시작

새 예비자 교리반이 다음주15일(주일)부터 시작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 성지순례 소식

올해 에집트 사태로 취소된 제1코스(이스라엘, 에집트, 요르단)
성지순례를 2012년 1월 31일-2월11일 동안에 순례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리랑 여행사(212-563- 335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버지 피정

아버지 피정이 "좋은 남자"란 주제로 다음주15일(주일) 메리놀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베드로회 방문덕(막시오) 회장님
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8시 출발합니다.)

(5) 민속의 날 행사

대건회 주최 민속의 날(구정) 행사가 22일(주일) 11시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6) 무료 의료보험 설명회

오늘(주일) 12시30분에 무료보험 설명회와 접수를 친 교실 에서
합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7) 혼배 갱신식

2월5일(주일)에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신분, 결혼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 되시는분 그 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반지)

(8) 성서 완독자

2011년 성서를 완독 하신 분 [박정이(아가다), 김정원(아네스), 김신자(카타리나), 한경수(바오로), 윤포카스, 송화준(세실리아)] 시상식이 오늘(주일) 11시미사중에 있습니다.

(9) 2012년 교구청(Stewardship Appeal)

2012년 교구청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당 뒷편 교구봉투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의 한달 분)

(10) 본당 모임

- 신부님들 사제연수관계로 이번주 9일(월)-14일(토)까지 평일 미사가 없습니다.
 - 서부브롱스밋 맨하탄 구역회가 오늘(주일) 민정구(스테파노) (718) 549-2471 구역장님 댁에서 오후 4시30분에 있습니다.
 - 동부 웨체스터 구역회가 오늘(주일) 황보 열(안드레아) (914) 482-2168 형제님 댁에서 저녁6시에 있습니다.
 - 대건회 월례회의가 오늘(주일) 센타 201호에서 있습니다
 - 베드로회 주관 스포츠댄스를 매주 화요일(1월10일시작) 저녁8시 친 교실에서 실시합니다.
 - 신자주소록 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 되신 분이나 빠지신 분은 본당 뒤편에 있는 용지에 적어주시면 새 주소록에 실어 드립니다.
 - 지난주일 본당에서 촬영한 가족사진, 축복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 [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 이번달(1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다음달 (2월달)은 동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3,230.00 말구유 헌금 : \$ 189.00
 감사헌금 : \$ 50.00(유근천) 교육헌금 : \$ 4,318.49
 교 무 금 : \$ 680.00 주보광고 : \$ 200.00(김여경)
 2011년 박진혁(완) 김윤기(완) 박정길(완) 남궁그레이스(완)
 2012년 김문자(1) 윤기운(1) 이종언(1)
 2012 교구청 기금 윤기운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금년 2012, 임진년은 용의 해이다. 용중에서도 물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힘찬 흑룡의 해라고 한다. 그래서 더 희망적이라는 말도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 사람들은 누가 새로 이사를 잤다거나, 무슨 큰일을 앞둔 사람에게 용꿈 꾸세요 하는 인사를 한다. 길운을 바란다는 말이다. 용은 용감하고,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그런데 사실 용이라는 동물은 전설에 나오는 동물로서 가상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용이라는 이 가상 동물이 어떻게 해서 12지, 즉 자 축 인 등 12동물의 하나로 들어갔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고양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전설 속에 나오는 용을 12지에 포함시키고는 12년마다 용의해, 용띠라고 용 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하긴 옛날이야기에 한 여인이 용꿈을 꾸고 어떤 장사를 낳았다고도 하지 않는가? 물론 용꿈을 꾸면 기분은 좋을 것 같다. 길운이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그저 꿈일 뿐이다. 그래서 꿈을 현실에 맞추어 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사실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용꿈을 꾸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수가 있다. 물론 현실은 꿈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버겁다. 현실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들을 눈앞에 펼쳐 놓는다. 눈을 뜨면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주부, 끝이 없는 집안일...종일 상대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나의 앞에 계속 밀려오는 이런 일들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종종 우리는 주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제쳐놓고 다른 일 하기에 바쁜 사람들을 본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현실도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황 바오로 1세께서 말씀하시기를 "먼 곳에 있는 그 누구를 보살피기 위해 내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지마라" 하셨다. 사실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 보살피는 것이 현실중에서도 현실이다. 요즘 새해에 들어서면서 흑룡의 해, 용감무쌍하고, 상서로운 용의 해라고 은근히 무슨 길운을 희망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우선 나에게 주어진, 눈앞에 놓인 현실에 충실하다보면 복된 삶이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 몽은